



오늘의 날씨 | 흐림 | 기온 1°C/7°C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음력 12월 18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972호



“평창 화이팅!”

임원 위촉식을 마친 2018 평창 범국민 코리안 기독서포터즈단 임원과 단원 300여명이 주요 빙상 경기가 열리는 아이스 아레나 빙상 경기장 앞까지 평화 행진을 하기 위해 집결해 있다.

2018 평창 범국민 코리안 기독서포터즈단 제공

한교총,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교회봉사단 운영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만 경기장 인근에서 진행하며, 개폐회식 시점은 물론 대회 기간 중 강릉·평창·정선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선정해 수시로 진행한다. 특히 플레이스립은 전문가 수준의 팀을 조성하여 공연하거나, 청년대학부 활동이 활발한 교회 중 자원하는 교회에서 요청하면 협의 통해 진행 편의를 제공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백만전도운동본부장 지하수 목사를 실무총괄 사무총장으로 세워 운영하는 봉사단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동계패럴림픽 기간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해외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함께 전도대 운영과 공연을 진행한다. 한교총은 지난 총회에서 이를 인정했으며, 1월 16일 소속 교단에 공문을 통해 봉사단(전도대) 파견과 거리 공연(플레이스립) 파견, 교단별 재정 후원을 요청했다. 봉사단(전도대)에 참여를 원하는 교회 혹은 단체는 15~20명으로 팀을 구성해 1박 2일 기준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교통편은 해당 교회/단체가 부담하고 봉사단에서는 숙식과 활동용품을 제공한다.

거리 공연(플레이스립)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만 경기장 인근에서 진행하며, 개폐회식 시점은 물론 대회 기간 중 강릉·평창·정선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선정해 수시로 진행한다. 특히 플레이스립은 전문가 수준의 팀을 조성하여 공연하거나, 청년대학부 활동이 활발한 교회 중 자원하는 교회에서 요청하면 협의 통해 진행 편의를 제공한다.

또 응원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작은 나라들의 경기나 비인기종목 응원을 주목적으로 경기 서포터즈(응원단)를 모집하는데, 응원할 국가의 국기와 응원복, 도구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장권과 단체구매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내용은 한국교회봉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회총연합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교회 봉사단(전도대) 한교총 사무실 02-744-6200

박용국 기자

구세군 2017 자선냄비, 전년 대비 3억 더 모금 모금된 국민 성금 63억 3600여 만원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12월 31일로 2017년 자선냄비 거리모금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2017년 11월 30일 ~ 12월 31일) 동안 모금된 국민의 성금은 작년보다 5% 증가된 63억 3600여 만원으로 집계되었다(거리모금 34억 3400여 만원, 기업모금 26억 1100여 만원, 온라인과 외부교회 모금 등).

구세군 관계자는 2017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 불어닥친 이용학 사건 등의 기부 포비아 영향이 자선냄비 거리모금에도 영향을 미쳐 2016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과 단체의 응원이 모아져 전체모금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기독서포터즈단 ‘평화행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아이스아레나 경기장까지 참가국기 들고 행진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18 평창 범국민 코리안 기독서포터즈단(대표총재 이영훈 목사, 상임공동단장 유만석·유순임 목사)이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감리교회(담임 이철 감독)에서 아이스아레나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 대행진 행사를 진행하고 성공기원 연합선회를 가졌다.

기독서포터즈단은 이날 오전 11시 강릉중앙감리교회당 예배실에서 1차 임원 200여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함께 참여한 기독서포터즈단등 400여명이 함께 ‘VICTORY! PEACE & LOVE’란 응원용 스텔스 허드를 목에 두르고 올림픽 참가국기 90여개와 기독서포터즈단기 200여개 등을 든 채 진행됐다.

“올림픽은 성공으로 민족은 복음화로”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며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앞에 도착한 기독서포터즈단 단원들은 주요 임원들의 인사말 이후 고문인 예장대신 증경총회장 노문길 목사의 대표기도와 공동진행위원장인 남동제 일교회 담임 한규섭 목사와 강릉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용철 목사가 평화행진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것을 간구하는 합심기도와 민승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특히 상임총재 이철 목사는 “북한 선수단이 이곳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한반도의 민족의 복음화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국내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안전하게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성실한 자원봉사와 스포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취지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

기독교총연합회나 강릉시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다른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이 해왔고 진행계획이 있는 만큼 범국민 기독서포터즈단은 응원과 자원봉사 성공기원집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통성 기도회를 한 다음 행사 를 마무리했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연합대성회’는 공동단장인 강원도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본부장인 김석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상임고문 민승 목사와 대표총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회장), 상임공동단장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담회장), 상임총재 이철 감독(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의 순으로 인사말씀이 메시지와 영상을 메시지로 전달됐다. 상임공동단장인 유민 목사(민족복음화여성총재)는 강릉으로 이동 중 메시지를 통해 “30년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은 영적 올림픽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신 세계평화를 구축하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민족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올림픽으로 특히 기독 서포터즈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상임총재인 강릉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이철 감독과 공동총재인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용철 목사가 평화행진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것을 간구하는 합심기도와 민승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특히 상임총재 이철 목사는 “북한 선수단이 이곳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싹을 수 있기를 기도하자. 적절한 시기에 개초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민승 상임고문은 “서포터즈단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직접적인 선교나 전도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선교와 전도프로그램은 이미 강원도 목사는 해외집회 인도자 참석치 못한 점을 밝히고 영상 인사말을 대신했다. 기독서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번 주 중국 예배당 철거, 파키스탄·볼리비아 기독교 새 규제



리처드 월브 런드(Richard Wurmbrand)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통하여 ‘무(Nothing)’라는 선물을 주실 때

리처드 월브 런드(Richard Wurmbrand) 목사

빼릴 수 있는 이

유를 일깨워준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한 교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너뜨렸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집회를 금지했으며, 볼리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협당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에 경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속에 폭력성과 그 부당함에 대해 되기 쉽지만,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는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월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의 치하 루마니아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14년 동안 투옥되어 고문을 당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를 끌어내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아무것도 입지 못했어요.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했죠.” 그러나 월브란트 목사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때조차(이번 주 중국, 파키스탄, 볼리비아 정부가 했던 일처

럼),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無)에서 유(有)를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인 죄수들” 모두 형형색색 아름다운 나비, 지저귀는 새, 향기로운 꽃, 양증맞은 아이들이 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났습니다. ‘잠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無)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는 매우 가치 있는 원인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주를 만들 수 있어요. 금과 다이아몬드로 그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해내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풀리 현숙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주 교회가 파괴되고 종교에 대한 권리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월브란트 목사와 구야 속 요셉의 목소리로 중국, 파키스탄, 볼리비아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인권 이상의 것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견뎌낼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한편 월브란트 목사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Tortured for Christ)을 포함하여 기독교 박해에 관한 자료들을 원한다면 www.vomkorea.kr 혹은 02-2065-0703으로 문의할 수 있다.

홍은혜 기자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개념의 젠더주의적 왜곡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VI)

0. 머리말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인권과 결부시킨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소수자로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와 차별을 받아왔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유엔의 보편인권 선언과 결부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인권 차원에서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성찰해보면 동성애는 성적 중독이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동성애가 성중독(性中毒)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등 인권과 연계된 개념들이 젠더주의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자유 개념의 사유화(私有化): 자유방임적 무책임적 자유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전통적인 자유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자유란 외부적 강제 없이 양심에 따라 지기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예전 군부 독재 시절 정치적으로 유신헌법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요구는 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대변하는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공산국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유사보의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면서 8년 감옥에 있었던 그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는 사회적 다수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양심의 소리와 책임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회적 다수들이 인정하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공동선(共同善)에 기여하는 자유다.

이에 반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과 책임에 벗어난 주관적인 기분(subjective whim)을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즉 자유방임(laissez-faire)만 주장한다. 개인적인 기분으로 환원된

물학적으로 다른 성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놀랍게도 뇌와 신체 구조 등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성(性)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훗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좋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에서 이성애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생산하고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된다. 이성애는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서로 인격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참 인간 존재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한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천부적으로 심겨진 사랑의 본연질서이다.

동성애자들의 사랑 개념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보다는 성적 탐닉(耽溺)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보신학자들의 주장은 바르다고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수백 명의 성관계 파트너와 함께하는 문란한 성적 행동에 불과하며’ ‘극단적 성욕을 추구하다보니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앓고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20년가량 짧고 자살률도 높다.’ 2017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쿠비가 피력한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신실함, 헌신, 생명이라는 가정과 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절대 충족시키지 못 한다.’ 동성애자들은 ‘성욕 해소에 집착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성을 결정한다’며 자신이 창조주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 유품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간 존재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결혼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하나님과 간에게 정해주는 것으로 신성한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가 한 남성, 한 여성으로 성장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데 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결혼 후 손주라는 생명을 부모님께 보여드림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쿠비가 피력하는 바같이 “가족이란 마음 속 갈급함을 채워주는 공간”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실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 이같은 사랑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가치”이다. 전통적 가정과 결혼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관용 개념의 사유화: 관용이란 선과 악의 구분을 폐지. 모든 것을 선으로 선인.

관용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다른 견해와 태도에 대하여 참고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용이란 모든 것을 선이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볼테르 등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주로 절대 군주 통치자들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변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 용어를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를 예전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순수한 선인 자체는 불관용(intolerance)으로 간주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관용이라는 진리를 가르쳤으나 비잔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관용이란 이러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관용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관용이란 비잔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생각과 신앙에 대하여 이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비잔티리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며 관용이라 하여 죄된 행위(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폭력, 마약 등)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강요되지 않으며 거짓이 묵인되지 않아야 한다. 예수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a-32).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박멸하고자 한다.4. 정의 개념의 왜곡: 정의란 소수자 요구 관철하는 것.

정의란 권리와 의무의 정당한 주고 받음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사회적 기

정치의 정의다. 이러한 성정차는 국가 권력이 성소수자의 요구를 강요하여 일반 성다수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다.

오늘날 게이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 에이즈(AIDS, 후천면역결핍증후군) 감염자의 1년 의료비는 3천만원이라고 추정하며 이들의 의료비는 3천천억이며 이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로는 전체 감염인 중 남자가 9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질병 치료비 부담에 있어서 정상인들의 질병 치료비 부담보다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불공평, 즉 객관적으로 다른 것(동성애)을 공평한 것(정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법체계가 세워진 정의 원칙의 도착(倒錯, reversal)이다.5. 평등 개념의 왜곡: 상대적 평등 무시 절대적 평등 요구

평등(equality)은 구성원들 가운데 일하는 기회의 균등과 일한 만큼 동일한 보수(報酬)가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등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비교의 제3자(tertium comparationis)이다. 비교의 제3자에 의해 두 대상이나 사람이 비교되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결정된다. 결론이란 두 파트너 사이의 이성

의 용어에 이성복장착용자(crossdresser)를 추가시킨 용어이다. 한국에서도 뛰어 축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동성결혼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변성애자(opensexual, pansexual)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하숙방의 여성, 부엌의 남성, 갈비 속의 태아들의 이상(理想)에 따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실체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적 평등 주장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성별(性別) 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와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명목으로 같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끼리 그리고 여성끼리 성관계가 성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부부 아닌 이성 간의 성관계처럼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초등학교 영어 교사인 최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축제 영상을 보여 주어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최 교사의 자리 주변 칸막이엔 무지개 깃발과 포스터 등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도 있었다. 최 교사는 지난 5월부터 학교 내 ‘페미니즘 북클럽’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교감을 포함해 이 학교 교사 58명 중 21명이 가입했다. 최 교사와 함께 이 동아리 활동을 한 다른 교사들도 아이들을 상대로 성평등 교육에 나섰다고 알려졌다.(속 깊은 뉴스) ‘혁신학교 수업 재량권 줬더니... 편향된 성평등 교육,’ 최아리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 2017.08.26 03:10; 조선일보 A10.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6/2017082600076.html

최 교사는 2017년 7월 17일 6학년 3개반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 내내 자신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뛰어(queer·성소수자) 축제(7월 15일)에 참여해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 최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간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교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남자끼리 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여줬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어 예문을 거의 she(여성) 인칭 대명사로만 들었다' '선생님이 여자아이들만 예뻐하고, 남자아이들을 면박 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최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아이가 여자 인형끼리 결혼시키는 놀이를 하길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최 교사가 개인 성향의 페미니즘 운동을 학생을 상대로 전파, 어린아이들이 너무 일찍 성소수자의 권리 이야기나 한쪽으로 치우친 성 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성 교육은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정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

6. 차별 개념의 왜곡: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구별을 차별로 변질시킴
차별(discrimination) 개념은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싸움을 합법화하는데 열쇠 개념이다.
문명사회는 인종, 문화, 사회계급 등에서 발생해온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투쟁하여 오늘날 문명사회를 이루하여 왔다. 예컨대, 지난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남성에게만 허용하고 여성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남녀 차별로서 오늘날 철폐되었고, 대학교육에 있어서 여성이나 남성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남성이 출산하여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직장 선택에 있어서 여성에게 차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우리 문화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화장실 시설의 경우 여성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하철 손

잡이 등도 남성의 평균 키만을 고려해서 지하철 손잡이를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선되었다고 한다. 공중휴게소의 화장실도 남성 위주로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사용이 불편하다. 각종 광고에 있어서 여성에 비하하는 내용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 차별이란 정당한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 주종자들은 인종에 기초한 역사적 차별로부터 집합적인 죄과를 가져와서 차별 개념을 동성애의 정당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성애와 동성애) 사이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에 구별하지만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어떤 불공평한 대우는 차별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성적 행위가 개인과 사회의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한

영향을 끼친다 할찌라도 차별 개념은 성적 행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구별을 차별로 간주하여 구별조차 못하도록 만든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는 관계 없이 품위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성애자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명예훼손(libel), 흐름(harassment), 추방(exclusion)에 대한 범죄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의 품위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도덕적 원칙에 따른 정성적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discrimen"이란 차별(distinction) 내지 차이(difference)에 대한 라틴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해야만

존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인권이란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결혼 제도, 일양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동성애를 비정상(좌)으로 지적하고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이다. 젠더 이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종교 언론의 자유를 뺏고 있다. 젠더 이론은 인신에 대한 거짓말로 시작된 이론으로 책임감도 없는 자유, 정의, 관용, 차별, 평등 등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이 심불로 내걸고 있는 '무지개'는 우리 위에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모시키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회책하는 세계적 동성애 전제주의 운동에 대하여 성경적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이들의 왜곡된 사상에 감염되지 않고 바른 종교개혁적 정통사상에 입각한 신앙을 보

는 선과 악 사이의 구별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우주의 질서이다. 그래서 인류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의식을 가져왔고, 양심은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7. 맷음말
젠더이론은 가족과 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자유, 사랑, 정의, 관용, 차별, 평등 개념으로 포장된 잘못된 젠더이데올로기를 구별해 낼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정상적인 가치 언어(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등)를 왜곡시키고 이러한 언어에 본래 지니는 용법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변모시키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회책하는 세계적 동성애 전제주의 운동에 대하여 성경적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이들의 왜곡된 사상에 감염되지 않고 바른 종교개혁적 정통사상에 입각한 신앙을 보

[2018 평창 범국민기독서포터즈단 발대 평화행진 선언문]



아이스아레나경기장 앞에 도착한 기독서포터즈단 단원들이 참가 국기를 흔들며 평화적 올림픽 성공개최와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적 를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2018 평창국민코리안 기독서포터즈단 제공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한 범국민 코리안 기독 서포터즈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의 즐거움을 이루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이번 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각국이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지고 사랑과 평화의 목적에 이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100년이 멀다면 향후 50년, 10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를 실천할 인재가 있는가?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지속 가능한가? 전략이 필요하다. 2018년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레퍼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교회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기엔 시간이 없다. 교회여 쫌지 말고 당당히 가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땋잇하게 정도를 겸자. 그리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아닌 것은 아이라고 말하자.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각자도생도 어렵다.

있는 힘을 다해 교회와 목회자가 연대하자. 이제는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할 때다.

수단들을 위한 응원과 각국의 경기 성원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에 자발적인 범국민적 성원과 참여에 나섰고 이제 그 운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발대 선언과 함께 결의를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2018 평창 범국민기독서포터즈단원 일동은 세계 평화와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을 기초로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이뤄지고 민족의 복음화 뜻이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이념과 정치, 종교색을 타파하고 남북 평화적 관계 개선과 통일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뜻에 따라 세계의 평화적 안정적 기틀 구축 및 올림픽정신을 구현하는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장이되고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서포터스 봉사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 한다.

2018 평창국민코리안 기독서포터즈단 제공

[이효상 칼럼] 한국교회, 미래전략있나?



이효상 목사(교회건강 연구원장)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주류종교이다. 그러나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고 너무 자학적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끄는 데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마치 미리각인 삼순처럼 말이다.

물론 일부의 일부가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은 벌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난도질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이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한국교회는 늘 프레임 싸움에서 늘 지고 있다. 특정세력이 쳐 놓은 프레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일회성 이벤트에 몰려나간다. 시간과 기회, 그리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만다.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다.

장기 지속적 전력을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데로 서로 분열하다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최근 10년이 그랬다.

한국교회는 '연합'을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대표회장' 뽑기라는 놀이에 열중하며 분열해 왔다. 그래서 '연합' 기관 때문에 연합이 안된다'는 어느 교단 전총회장님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지원예산을 보면 불교가 75%(700억) 정도가 되고 천주교 10%(100억) 기독교

가 4%(4억~5억)미만 정도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년 5억원 미만이다. 연합기관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이다.

여러 행사 빌미로 2~3천만원 정도 밥값이나 응돈을 집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생계유지하는 이들이 밥먹고 하수인 노릇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정부의 종교예산 관련 국고지원은 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먼저 이런 국민혈세를 안받겠다는 선언과 함께 받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종교계가 종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고 정부 또한 종교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종교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낭비하거나 생계형 기관을 부양시키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가하면 한국사회는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유지해 왔으며, 격차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학내 종교 차별 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너무 했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문제를 공격해온 종자연에 용역을 맡기며 지원한 것은 종

교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독교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일제시대에도 하지 않은 일을 민주주의 시대에 기독교사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종교활동을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종교사학에서 사학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량대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전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상식에 반하여 기독교의 정책 및 선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함께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종교차별 전략을 전개해 왔다. 더 나아가 동성애 조장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 일까?

이런 국가인권위의 편향성 시정도 필요하다.

종교사학의 설립이념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얼마나 교회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왔는가?

또한 형평성 잊은 종교인 과세의 주된 타겟은 '개신교'가 아닐까 싶다. 교회는 면세하고 성직자는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의도가 성직자를 근로자로 만들고 노조를 설립하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게 된다.

올해 6월은 지방선거가 있다. 이런 정치판에 출서기로 교회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선거철에 교회를 이용하여 한몫보려는

정치꾼들에 놀라나지 말아야 한다. 3.1운동은 교단이 아닌 성도들의 개인적 참여로 이뤄진 좋은 전통이다. 그러나 교회가 특정한 정권과 유착될 때 나중에 그 정권이 어려워지면 기독교도 같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교회나 교단, 연합기관은 정치 일선에 한발 물러서 크리스천 개인이 시민단체 등의 사적 영역으로 선거에 참여토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전략을 가지고 지역감정에 동조하거나 특정 정파에 편서기보다 후보자를 겸증하는 전략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역별로 정책 겸증으로 교회의 가치관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을 발전하고 심화시켜 한국교회가 사회에 존경받는 민주적 지도자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진정 100년이 멀다면 향후 50년, 10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를 실천할 인재가 있는가?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지속 가능한가? 전략이 필요하다. 2018년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레퍼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교회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기엔 시간이 없다. 교회여 쫌지 말고 당당히 가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땋잇하게 정도를 겸자. 그리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아닌 것은 아이라고 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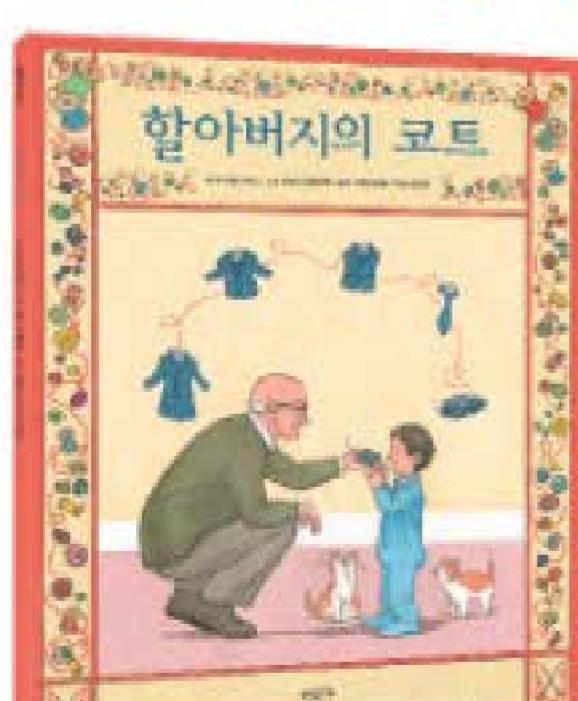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각자도생도 어렵다.

있는 힘을 다해 교회와 목회자가 연대하자. 이제는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할 때다.

수단들을 위한 응원과 각국의 경기 성원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에 자발적인 범국민적 성원과 참여에 나섰고 이제 그 운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발대 선언과 함께 결의를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2018 평창 범국민기독서포터즈단원 일동은 세계 평화와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을 기초로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이뤄지고 민족의 복음화 뜻이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이념과 정치, 종교색을 타파하고 남북 평화적 관계 개선과 통일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뜻에 따라 세계의 평화적 안정적 기틀 구축 및 올림픽정신을 구현하는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장이되고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서포터스 봉사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 한다.

2018 평창국민코리안 기독서포터즈단 제공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편한 코트 한 법.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치명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타이를 만들었네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의외였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무관하고, 불屠杀된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네요.
존경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석가 미나미즈 이효재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0-704-7050